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척전>에 나타난  
심미적 감성 역량 교육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은 유

<최척전>에 나타난  
심미적 감성 역량 교육

심 치 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은 유

# 인 준 서

이은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에 주목하였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위한(趙緯韓)의 <최척전(崔陟傳)>을 토대로 교수·학습 방법을 구성하였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해당 작품이 사회·역사적 맥락에 치중되어 학습되어 왔다면, 본고에서는 작품에 내재된 심미성에 중점을 두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전란의 상황이 작품 속 인물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 안에 나타난 삶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교육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척전> 속의 심미적 감성의 요소를 찾고 교수·학습법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한 핵심역량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는 교육과정 총론의 개념이다. 본 연구가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개별 교과 교육과정의 층위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론의 심미적 감성 역량이 국어 교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다. ‘심미성’의 개념은 미학으로부터 기원한다. 이것을 교육학적 측면과 국어 교과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문학 이론의 ‘수용 이론’이 문학 감상 주체의 경험과 인식을 중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하여 ‘수용 이론’의 심미적 체험의 의미를 연구하였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심미적 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III장에서는 II장의 연구를 토대로 <최척전>의 심미적 감성 측면을 추출하여 실제적 교수·학습 내용의 기반을 구성하였다. 먼저 <최척전>을 하나의 ‘국어

문화'적 향유물로 설정하고 심미적 체험의 단계를 <최적전>이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하고 학습자가 내면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IV장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제시해 보았다.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그 추상성 때문에 학습과 평가의 척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 교수·학습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심미적 경험 학습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백워드 설계는 평가를 고려하여 학습 단계를 준비하는 모형으로, 평가 척도를 먼저 생각하고 수업을 구성하여 효과적이면서도 이해 중심적인 수업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단순히 암기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고전을 으레 작가와 주제의식을 배워서 익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모형을 통해 학습자들이 고전이 담고 있는 그 자체의 재미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학습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감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은 실제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신문 기자가 되어 <최적전>을 소개하는 서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미적 역량과 경험에 중점을 둔 본 연구를 통해 고전 문학에 대한 분석적 접근보다 고전문학의 즐거운 향유와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5
II. 심미적 감성 역량의 이론적 이해	8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8
2. 심미성의 이론적 검토	1
2.1. 교육적 측면	11
2.2. 수용이론	17
2.3. 국어과 교육과정	19
III. <최척전>의 교육적 가치와 심미적 감성 역량 요소	7·2
1. 지난 교육과정 내 <최척전> 수록 양상	8 2
2. 작가 조위한과 <최척전>의 상관성	1 3
3. 애정전기소설의 특징과 <최척전>	4 3
4. <최척전> 속에 그려진 삶의 의미	6 3
4.1. 가족 공동체의 지향	6

4.2.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	0
4.3. 현실을 극복하는 강인한 삶의 자세 .....	4
<b>IV. 심미적 감성 역량과 &lt;최척전&gt; 교수 · 학습 방법 .....</b>	<b>7 4</b>
1.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이해 .....	7
2.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 .....	9
2.1.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	9
2.2.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	15
2.3. 학습 경험 계획하기 .....	14
3.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최척전> 교수 · 학습 .....	5 5
3.1. 1단계 : 학습 목표 설정하기 .....	6
3.2. 2단계 : 이해의 증거 결정하기 .....	9
3.3. 3단계 : 학습 실행 계획하기 .....	8
3.4. <최척전>의 심미적 감성 역량 교수 · 학습 지도안 .....	4 6
<b>V. 결    론 .....</b>	<b>74</b>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그간 인류가 꿈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들을 현실로 이행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 세기 동안 인류가 다져왔던 삶의 터전과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변화하고 그 주기도 점차 빠르게 바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양상에서 중요해지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보다 오히려 방대하게 쌓여있는 빅데이터에서 수월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앞으로의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 지식의 양을 갖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에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단편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응하는 인간의 핵심 능력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계에서도 단시간에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주목했다. 이에 2015년에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여섯 가지 역량을 토대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정된 사안이다.<sup>1)</sup> 핵심역량이란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것을 수행하거나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하며,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아가고 학습하며 일하고 공헌하는 데

1) 한혜정 외,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중학교』, 교육부, 2017, pp.34-37.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이다.” (교육부, 2015)

본고에서 주목할 역량은 이 중에서도 특히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이면은 수 세기 동안 인간이 일궈 왔던 것들이 한 순간에 기계로 대체 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환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이슈들은 인간이라는 ‘나’,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개념에 보다 관심을 보여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와 정보 기술의 홍수 시대에서 소외되어가는 인간 자신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태도 학습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조위한(趙緯韓)의 <최척전>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교육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전소설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작품 안의 세계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즉 다른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이다. <최척전>은 17세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되 국가적 차원이 아닌 전쟁을 몸소 체험하는 백성의 시선, 개인의 시선으로 이산의 아픔을 그려내는 작품이다. 이는 수많은 고전 작품들이 보였던 권선징악의 구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최척전>에는 현실적 문제를 긴박하면서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서사적 공간만큼이나 그 안에는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중심적 가치관과 삶의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척전>을 위와 같은 기존 논의의 토대 위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특히 심미적 감성 역량에 중점을 두어 학교 현장학습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최척전>의 서사는 17세기 동아시아가 겪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청나라의 요동 전투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에 서사공간이 조선에서 확장되어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이르게 된다. 지난한 서사 공간 안에서 만나는 이방 국가와 이방인, 그리고 가족애 등 여러 방면에서 <최척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최척전>과 작자인 조위한의 생애와 연관된 연구<sup>2)</sup>, <최척전>나타난 불교적 요소에 집중한 연구<sup>3)</sup>, 이본(異本)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sup>4)</sup> 등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논의와 연관이 되는 기존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기(2016)의 연구는 다문화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체험과 다문화 양상 비교」에서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두 소설 <최척전>과 「김영철전」을 비교하여 작품 안에 나타난 다문화 양상을 분석하였다.<sup>5)</sup> <최척전>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데 주목하고 행복한 결말로 전통적 서사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점, 적대국의 인물들이 ‘생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차별과 냉대가 없는, 곧 환상성과 위로를 위한 서사임을 밝혔다. 「김영철전」은 보다 사실성에 주목한 소설로, 전쟁이 야기하는 현실의 참혹함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작품에 드러난 다문화의 성격을 두고 정서적 화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비슷한 전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서사적 차이점을 도출했다.

- 
- 2) 민영대, 「최척전 연구」, 『한남어문학』 제13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87, 장경남, 「<최척전>의 창작 기반」, 『고전과 해석』 제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 3) 김기동, 「불교소설 ‘최척전’ 소고」, 『불교학보』 제11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4, 신해진, 「<최척전>에서의 ‘장육불’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 제35집, 안암어문학회, 1996, 김현양, 「<최척전(崔陟傳)>, ‘희망(希望)’과 ‘연대(連帶)’의 서사 - ‘불교적 요소’와 ‘인간애’의 의미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제2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 4) 권혁래, 「<최척전>의 이본 연구 : 국문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지연숙, 「<최척전> 이본의 두 계열과 선본」, 『고소설연구』 제17집, 2004, 이대형 외, 「<최척전>의 이본, <삼국기봉>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제36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 5) 김용기,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체험과 다문화 양상 비교 -<최척전>과 「김영철전」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2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6.

교과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이종필(2018)의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의 ‘우연성과 초현실성’-〈최척전〉의 교사용 지도서 분석을 중심으로」 6)에서 <최척전〉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최척전〉, 나아가 고전소설이 가지는 우연성이 장르적 결합으로 인식되는 점, 장륙불이 ‘초현실적 조력자’이지만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존재인 것과는 무관함을 지적하고 「소대성전」이나 「조웅전」의 조력자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작품의 역사적 맥락 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이 보여주는 당대의 현실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작품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다양하게 학습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교과서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최척전〉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흔히 교육되었던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고전소설에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척전〉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심미성과 교육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는 오윤주(2017)의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소설교육」 7)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미적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 소설교육에서의 심미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고, 그 개념을 총체적 탐구를 체계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설교육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심미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교실에서 이를 향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절차화 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가지고 상호소통하며 향유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문학교육의 미래적 방향성을 심미적 경험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6) 이종필,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의 ‘우연성과 초현실성’-〈최척전〉의 교사용 지도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24호, 고려대학교 학술어문연구소, 2018.  
 7) 오윤주,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소설 교육」, 『문학교육학』 제5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에서 본고는 <최척전>이 가지고 있는 서사와 아름다움, 그 안의 심미성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2015 개정 핵심역량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최척전>에서 추출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주목한다. 총 여섯 가지 핵심역량 중에서도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심미적 감성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위한의 <최척전>을 토대로 심미적 감성의 요소를 찾고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진 <최척전>은 작품의 역사적 배경에 보다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과 의지에 대한 의식에 보다 주목하고자 하였고, 고전소설 중에서도 <최척전>은 서사가 길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작품에 접근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이 작품을 선택하였다.

이에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한 핵심역량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는 교육과정 총론의 개념으로, 유치원·초등·중등 급별, 각 교과를 아우르고 있다.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본 연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론의 층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어 교과적 특성으로 실현한 심미적 감성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본다.

II장에서는 ‘심미적 역량’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미성’의 개념은 미학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학적 측면과 국어 교과적 측면에

서 심도 있게 살펴 볼 것이다. 단, 본고가 교육적 차원, 실제적 교수·학습 상황에서 실현되는 것 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즉 학습자의 위상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적 체험의 ‘주관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한다. 즉 미적 체험의 주관적 측면과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쉴러(Schiller)와 듀이(Dewey)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점의 연장선상에서 문학 이론의 ‘수용 이론’이 문학 감상 주체의 경험과 인식을 중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하여 ‘수용 이론’의 심미적 체험의 의미를 연구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연구를 토대로 <최척전>의 심미적 감성 측면을 추출하여 실제적 교수·학습 내용의 기반을 구성할 것이다. 해당 장(章)의 구성 층위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문화·향유 역량의 하위 요소로 하되, 분석의 틀은 앞서 Ⅱ장에서 고찰했던 쉴러와 듀이, 수용미학 이론으로 한다. 먼저 <최척전>을 하나의 ‘국어 문화’적 향유물로 설정하고, 쉴러의 유희충동 이론을 바탕으로 <최척전>이 가지는 재미 요소에 집중한다. 으레 ‘고전’이라고 하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흥미를 잃는 학습자들에게 최척과 옥영의 사랑이야기와 방대한 서사공간의 확장은 그들에게도 작품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았다. 이에 심미적 체험의 단계를 <최척전>이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고찰하고 학습자가 체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한다. 다음으로는 듀이의 이론과 수용이론을 통해 <최척전>이 함의하고 있는 주제적 측면을 학습자 주체가 심미적으로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최척전> 본문은 한문인 원문을 중등 학습자가 보기에 수월하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박희병(2007)의 단행본<sup>8)</sup>에 실린 것으로 하였다.

Ⅳ장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안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그 추상성 때문에 학습과 평가의 척도를 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효

---

8) 박희병,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을적이어야 하는 교수 · 학습의 성격을 고려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심미적 경험 학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심미적 감성 역량의 이론적 이해

###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개념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학습자 육성에 기반한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sup>9)</sup>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핵심역량’의 요소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여섯 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서도 본고에서 다룰 부분은 바로 ‘심미적 감성

9) 한혜정 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교육부, 2017, p. 26.

역량'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 역량 감성의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 될 수 있다.<sup>10)</sup>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심미적 감성 역량 하위 요소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적으로 이해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이것은 교육과정 총론 층위에서의 핵심역량을 제시한 것이다. 즉,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급별과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범주로서 제시된 것으로서 교

10) 위의 책, p. 36.

과별 특성과 학습자의 학년을 고려한 각론 범주의 개념이 필요하다.

국어과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문화 향유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해내는 능력<sup>11)</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과정 총론에 국어 교과적 특성이 반영된 것을 비교 정리한 표이다.<sup>12)</sup>

<표 3> 교육과정 총론의 ‘심미적 감성 역량’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화·향유 역량 비교’

<교육과정 총론>		<국어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	개념	핵심 역량	개념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총론에서의 내용이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위와 같이 내용이 변화되었다. 인간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서사 안에 담긴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과 의미를 찾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총론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총론과 국어

11) 교육부, 『201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국어』, 2015, pp. 3-4.

12) 이인화(2016:176)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총론의 내용을 국어과 교육과정이 거의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을 가장 앞서서 수용하고 핵심역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교과가 국어교과임을 피력하였다.

과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역량 혹은 문화 향유 역량이 함의하는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 가치의 정의 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심미성의 이론적 검토

'심미성'이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탐구하는 것으로, 개념의 근원은 미학에서 출발한다. 이 개념은 워낙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전공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방향으로 정의된다. 본고에서는 교육적 측면과 국어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미성의 개념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미학에서는 심미적이라는 표현보다 '미적 체험', '미적 경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본다면 이론가들은 미(美)와 미적 체험의 개념도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에 심미성, 심미적 경험, 심미적 체험, 미적 체험, 미적 경험을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며 본고에서는 '심미적 체험'을 주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 2.1. 교육적 측면

#### 2.1.1. 쉴러의 미적교육론

쉴러(F.Schiller, 1759-1805)는 심미적 체험을 통해 조화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사상가이다. 그는 심미적 체험이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사실상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심미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임을 주지해야 한다. 그는 혁명

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성과 야만성을 지켜보았다.<sup>13)</sup>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혁명의 도래가 있었다. 그는 기계화되고 분절화 되는 인간의 모습과 소외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간성의 회귀를 위해 예술적 감각을 도구로 삼은 것이다.

쉴러는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 인간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심미적 태도를 가지고 윤리성이라는 도덕적 목적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미적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자면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인간의 내면은 감성과 오성 가운데에서 싸우며, 이것을 조화롭게 하는 제 3의 품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감성과 오성의 조화는 국가의 통합의 기저이며, 그것은 바로 심미적 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나 이중의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대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원칙들에 우선하는 ‘거친 인간 Wilder’으로서, 혹은 원칙들이 감정을 파괴하는 ‘무기력한 인간 Barbar’으로서 대립적으로 됩니다. 거친 인간은 예술을 경멸하고 자연을 자기의 무제한의 지배자로 인정하고, 무기력한 인간은 자연을 비웃고 경멸하지만 그러나 거친 인간보다도 더욱 비열하게 지나치게 앞서 나가 자기 노예가 됩니다. [인용자 생략] 그러므로 이성이 <현존하는> 물리적 사회 안으로 그 도덕적 통일성을 가져올 경우 이성은 자연의 다양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이 사회의 도덕적 구조 안에서 그 다양성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도덕적 통일성이 그로 인해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획일성이나 혼란으로부터 똑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형식의 승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

---

13) “혁명은 너무나 많은 피를 요구했다. 혁명은 2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 숫자는 프랑스 사람이 아닌, 예를 들면 러시아 인 희생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용자 생략] 박애를 주장했던 혁명은, 박애와 인간성의 가장 위대한 원천인 사람의 목숨을 대량으로 빼앗아 갔다. [인용자 생략] 파리 소재 학교의 교사들은 매일 교실에서 바스티유 감옥 함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보복할 것을 거듭 가르쳤다.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는 순진한 양과 같았으나,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무지막지한 괴물로 바뀌었다.” 김민제,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1998. p. 232-233.

로 품성의 총체성 Totalität 이야말로 강제<=필요>에 의한 국가를 장의 국가로 바꿀 능력과 품격을 가지려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성인 것이다.<sup>14)</sup>

이는 대립하는 두 이념을 “하나는 야만적인 경우로서, 감정만 앞세우고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이고(=거친 인간), 다른 하나는 원칙만을 앞세워서 섬세한 감정의 측면을 짓밟아버리는(=무기력한 인간)태도”(안인희, 1995:178-179)라고 보는 것이다. 이 두 요소가 갈등을 멈추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총체성이며 통합되는 국가의 길임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조화로운 총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심미적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범위의 충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쉴러는 두 가지를 각각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이라고 명명했다. “감각충동(=물질충동=삶의 충동=감정충동)은 개성이 실제 현실에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충동”(안인희, 1995:187)으로 개성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식충동을 다른 말로 이성충동이라고도 표현하면서 “현실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현된 상태를 하나의 존재 안에 통합하는 역할”(안인희, 1995:187)이라고 정의했다. 이 둘은 각각 감성과 이성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교육은 각 충동이 각각의 고유 영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각능력을 위해서 감각적 수용능력, 혹은 감수성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성능력을 위해서는, 사고력을 감각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모든 감각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한다.”(안인희, 1995:188)함은 두 영역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조화에서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두 충동이 보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충동이 유희충동인데, 두 충동의 목적보다 오직 즐거움에 관심을 두면서 두 감각 충동과 형식 충동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로서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총체적 인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14) 프리드리히 쉴러, 안인희 역,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청하, 1995. p. 26.

아름다움이란 이성과 감각의 조화로움으로서 이는 유희 충동에서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직접적인 감각을 할 때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그것은 <=감각적 수용능력> 우리의 다감하고 변하기 쉬운 기질이 인상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서 <생각하기 위해> 긴장하는 힘을 줄어 들게 합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들을 긴장시켜서 추상적 개념들에게 이끌어 가는 그것은 <=형성력=사고력> 모든 종류의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강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바로 그 정도만큼 우리에게서 감각성을 빼앗아 갑니다.[인용자 생략]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면 바로 그 순간만큼은 우리 자신의 수동적인 힘과 능동적인 힘에 대해 똑같은 정도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진지함에 대해서나 유희에 대해서, 정지에 대해서나 움직임에 대해서, 복종이나 저항에 대해서, 추상적 사유나 관조에 대해서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sup>15)</sup>

쉴러는 감각 충동 이후에 형식 충동이 따른다고 보았다. 즉 감성이 충족 되면 이후에 이성적 사유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미적 상태가 있다. 이 상태는 “가득 채워진 무한성의 상태”(안인희, 1995:198)로서 특정 방향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이든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미적 상태란 도덕적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미적 상태에 이르면 감각 충동과 형식 충동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술작품을 관조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즉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았다. 미적 상태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나아가며 교육은 인간이 이러한 미적 상태로 잘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

15) 프리드리히 쉴러, 앞의 책, p.121-122.

### 2.1.2. 듀이의 경험론과 심미적 경험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의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학습 목표에 따른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이는 프래그머티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가 주장했던 예술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체의 삶과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다.<sup>16)</sup>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저서인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난다. 듀이가 태어난 해는 1859년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해이다. 한편 그의 성장기에는 남북문제, 노예해방,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결부되면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아닌 실제 삶 속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인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철학적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는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유기체가 가지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분절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주목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험의 의미 역시 유기체와 같은 성격에서 비롯한다. 인간이 마주하는 하나의 경험은 뒤잇는 경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경험의 연속성과 더불어 상호작용의 원리를 규명하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상황이 결부되어 있음을 말한다.

상호작용에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며 각 상황에 따른 성질에 의해 의미가 생긴다고 말한다. 성질이라는 것이 의미와 연관됨을 보여주며 상황마다의 특성에

---

16) 정순복(2007:430)은 듀이의 경험론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예술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상의 실제들을 이렇게 들추어봄으로써 일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상이라는 것은 느슨하고 비체계적인 경험 영역들이라서 상투적으로 되풀이되는 지겹고 역겨운 경험 과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역겨워하고 얽잡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칠 수 있는 경험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듀이 프래그머티즘 미학의 이러한 실천적 패러다임들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치화함으로써 우리 일상은 무궁무진한 미적 경계들을 지닌 소중한 지극히 의미심장한 시공간성으로 충만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른 변화를 설명한다. 성질은 환경이나 생명 혹은 무생물 등 모두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다. 나무는 나무의 성질이 있으며, 돌맹이는 돌맹이의 성질이 있다. 물이나 공기 역시 자신만이 가진 성질이 있다. 성질은 고유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체를 특징짓게 해준다. 그리고 듀이는 미적 성질과 같이 추상적인 성질 역시 모든 것에 담지되어 있음을 말한다. 유기체는 상황에 따른 성질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sup>17)</sup>

즉 모든 상황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기체, 즉 인간에 의해 실행된다. 듀이는 경험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그 범주에 주체의 의식 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두었는데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체험이나 그로 인한 내면적 감정, 생각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험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미적 경험에 대한 생각과 이어진다. 듀이는 일상의 경험 중에서 하나의 경험을 가지며 이는 곧 심미적 경험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느슨하고 목적 없는 일상의 행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서 경험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자 생략] 하나의 경험은 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경험과 미적 경험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공통점은 둘 다 질적인 성질을 가진 경험이라는 것이다. 완성적 경험이며 처음과 중간 끝을 지닌 하나의 완결된 단위의 경험이다. 다만 둘의 차이점으로 미적 경험은 예술에 관계된 경험이라면, 하나의 경험은 지적인 경험 또는 일의 완성으로서의 경험이다.<sup>18)</sup>

즉, 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곧 하나의 경험이며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한명희는 하나의 경험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

17) 박주희, 「존 듀이의 경험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미」, 『인문학연구』 제5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pp. 455-456.

18) 위의 논문, pp. 459-460.

① 완전성과 충만감이 있다. 경험한 내용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의 내적 일치성 혹은 합일성에 의한 완전성이다.

② 하나의 경험은 구조(structure)와 형태(pattern)를 지닌다. 즉, 경험의 시작과 클라이맥스, 그리고 완결에 연이은 발전이 있다. 그리하여 경험의 모든 부분과 구성 요소가 하나의 구조적 의미와 관계 속에 존재하게 된다.

③ 이와 같은 경험에는 단일감, 통일감(feeling of unity)이 있다. 경험의 구성요소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이것들을 한데 뭉치는 지배적인 단일성, 통일성과 같은 느낌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④ 그 경험 속에는 의미(significance)와 강도(intensity)가 누적되어 자라서 그 과정의 최종적인 목표에서 충만감(consummation)이 있다.<sup>19)</sup>

듀이의 미적 경험은 이와 같이 하나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경험에서 미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고, 특수한 즐거움을 자아내는 어떠한 것이다.(한명희, 2002:27-28.)

## 2.2. 수용이론

설러와 듀이의 연장선상에서 심미적 체험이 그것을 체험하는 주체에 있음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볼 때, 문학 이론에서의 수용자인 독자의 지평을 중점에 두는 이론이 바로 수용이론이다. 수용이론이란 “독자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개발된 이론”(구인환 외, 2012:73)으로, 독자의 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60년대 독일에서 수용미학은 야우스(Hans Robert Jauss)와 그의 동료 이저(Wolfgang Iser)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텍스트와 작품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

19)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2002, p. 27.

‘텍스트’란 작가가 창작해놓은 인쇄물이며 이것을 독자가 읽고 이해하고 재생산해낸 것을 ‘작품’이라고 했다. 작가의 ‘텍스트’는 독자에 의해 재정비되며 나아가 여러 개의 ‘작품’이 된다(차봉희, 1985:18-19). 독자의 지평이 결부되어야만 비로소 작가의 창작물은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며,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심미적 체험을 통해 진정한 작품을 만나게 된다.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심미적 경험은 “문학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수용자의 작품 체험 속에 내재해 있다는 통찰 하에서, 문학 텍스트 이해의 기준을 수용자의 <심미적 경험 ästhetische Erfahrung>에 두고 문학 작품의 역사적·심미적 연관성을 성찰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해명하는 것이다.”<sup>20)</sup> 야우스는 ‘근원적인 불복종성’으로 명명하고 정치·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것이며, 단순한 감각적 미감을 향수하는 분절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학적[예술적] 경험이 갖는 경험의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sup>21)</sup> 그는 인간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을 심미적 경험, 일차적인 요소로 파악하는데 여기서 심리적 작용은 독자의 완전한 주관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독자의 의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독자가 마주한 독자가 마주한 인식대상이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의식, 선행적 지식, 경험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2)</sup> 독자가 텍스트와 만날 때 작용하는 심리적 체험, 선행적 지식, 독자의 의식으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백을 메우는 일, 그러한 과정의 총체를 바로 심미적 체험이며 이러한 체험을 느끼게 하는 작품 안의 요소들을 바로 심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이론이 문학 현상에서 독자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핵심역량에 주목하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많은 양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

20)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p.44.

2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p. 147.

22) 위의 책, p. 148.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지향하는 삶에 보다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단순 축적에서 벗어나 학습자로 하여금 그것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우 외, 2017:73). 이처럼 수용이론에서의 독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체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3. 국어과 교육과정

심미성이 교육적 의미와 결부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신적·물리적으로 긍정적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의 삶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화 부분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심미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한 요소로 제시되기 이전부터 국어의 문학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심미적으로 향유해야 함을 언급해왔다. 이에 국어 교과에서는 심미성에 대하여 어느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015 개정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1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개정 논의가 총론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제한되어 있어 중학교 부분을 제외한 고등학교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 2.3.1. 2009 개정 및 2011 개정 교육과정

①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인 문학 I 과 문학 II에서 심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문학 I에서는 ‘문학의 성격’의 하위요소로 ‘문학의 역할’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서 심미성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4>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I’

[문학의 성격] 23)	(가) 문학의 역할
	① 문학이 인간과 세계의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sup>24)</sup>

다음은 문학 II에서의 심미성 관련 성취 기준이다.

<표 5>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II’

[문학과 삶]	(다) 문학과 문화
	②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안목을 기른다. <sup>25)</sup>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심미적 인식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 인식과 그 표현 능력을

23)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09, p.241

24)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09, p.241

25) 위의 책, p. 275.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안목은 문학 교육이 추구하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능력 획득의 핵심이다.

심미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지적 인식이나 정의적(情意的) 인식과는 구별된다. 과학적 인식으로 대표되는 지적 인식은 대상의 존재 방식을 명료하고 분명한 언어로 보여 준다. 정의적 인식은 인간의 규범이나 실천 문제와 연관된 인식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심미적 인식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 기술 발전이나 경제적 풍요로움의 장점과 한계, 사회적 규범의 유연성과 경직성 등의 문제를 인간 존재의 측면에서 성찰하되 그것을 희극이나 비극으로 그려낸다.

이 내용은 심미적 인식의 개념 이해하기, 심미적으로 사물을 보기와 지적·정의적으로 보기의 관계 이해하기,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심미적 관점 이해하기, 심미적으로 발견하거나 성찰한 바를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등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sup>26)</sup>

## ② 2011 개정 교육과정

다음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미성에 대한 성취 기준이다. 2011 개정에서는 국어Ⅱ와 문학 과목에서 심미성이 제시되고 있다.

<표 6> 2011 개정 국어 Ⅱ ‘문학’

### 내용 성취기준 (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문학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게 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며,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신장시킨다. 독자들은 문학을 통

26) 위의 책, p. 278.

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기를 수 있다. 문학의 효용을 이해하게 하고 문학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sup>27)</sup>

<표7> 2011 개정 선택과목 중 ‘문학’

[문학과 삶]	<p><b>(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b></p> <p>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고민과 생각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이해하고 그의 인식적, 미적, 윤리적 가치를 탐색하며 이러한 가치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용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여 자신의 삶을 고양하도록 한다.<sup>28)</sup></p>
---------	---

### 2.3.2.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렇다면 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심미적 감성 역량’의 하위로 서, 또한 이전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심미성’의 흐름 안에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심미성’을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총론 범주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국어 교과 특성에 반영한 것이 다음의 ‘문화 향유 역

2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1, pp. 90-91.

28) 위의 책, p. 138.

량'이다.

<표 8>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화 향유 역량'의 하위 요소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다.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한다.

문화 향유 역량의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이전 교육과정들의 성취기준 중에서 '심미적으로 작품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인식한 결과물을 학습자의 생각과 태도에 내면화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기본과정의 '국어'와 선택과정의 '문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과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교육과정의 '국어' 영역은 핵심 개념으로 '문학의 본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으로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 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sup>29)</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9>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영역 내용 체계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학의 본질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		

29) 교육, 앞의 책, 2015. p. 10.

	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심미적 체험의 소통	유기적 구조
--	---------------------------	------------	--------

이를 위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9국05-0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이 성취기준은 문학 활동이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인간의 삶에 대한 심미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언어 활동임을 이해하고 수용·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이다.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정서적·심미적 경험을 확충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sup>30)</sup>

선택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는 심미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영역은 ‘문학의 본질’에서, 핵심 개념은 ‘언어예술’, ‘진·선·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문학은 언어를 매재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 요소로는 “인간과 세계의 이해, 삶의 의미 성찰, 정서적·미적 교양”을 제시하고 있다.

<표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중 ‘문학’ 영역 내용 체계의 ‘문학의 본질’

30) 교육부, 앞의 책, p. 53.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문학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예술</li> <li>진 · 선 · 미</li> </ul>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인식적 · 윤리적 · 미적 기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과 세계의 이해</li> <li>삶의 의미 성찰</li> <li>정서적 · 미적 고양</li> </ul>

다음은 성취기준과 해설이다.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의 고양함을 이해한다,
--------	--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31)

이처럼 미학적 ·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심미적 체험은 대상을 느끼는 주체의 인식과 감정에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사는 “교수 · 학습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교 상황, 교실 상황에 따라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이면서도 개별화된 수업을 꾀할 수 있다”(최미숙 외, 2012:27)는 점에서 볼 때, 교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31) 교육부, 앞의 책 pp. 124-125.

문화 향유 역량 하위 내용들을 학습자와 학습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를 실제로 운영되는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적전>이 가진 심미적 감성 역량을 직접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최척전>의 교육적 가치와 심미적 감성 역량 요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총론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문화 향유 역량으로 교과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어과에서는 심미적 감성의 통로를 국어 문화가 만들어낸 다양한 인물들의 삶, 그것을 담아내는 장르적 성격 등 학습자가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Ⅲ장에서는 <최척전>이 가지고 있는 ‘국어 문화의 계승’의 측면, 그 속에 담긴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향유’하는 측면과 더불어 앞서 고찰했던 쉐러와 듀이, 그리고 문학의 수용이론에서의 심미성의 의미를 토대로 <최척전>에 내재되어 있는 심미적 감성 역량의 요소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아름다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아직까지도 그 정의가 명확하게 하나로 확정되지 못하였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체로 의미의 중심이 옮겨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은 모두 작품의 심미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이 작품의 심미적 요소를 일방적으로 추출해 본다는 것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문학적 소양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며 고전 작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와 주장을 담은 해석이라는 일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을 유도해야 할 책임감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작품과 작가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보면서 일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작가의 의식을 고찰해본다. 그 다음은 위에서 밝힌 심미적 체험 연구를 바탕으로 일련의 작품의 심미적 요소를 추출해보고, 이를 통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상의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지난 교육과정 내 <최척전> 수록 양상

### 1.1. 2011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내 <최척전> 수록 양상

<표11> 2011 개정 교육과정 내 <최척전> 수록 단위 및 단위명

교과서	출판사	단위명	
		대단원	중·소단원
국어⑤	비상교육 (한)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	02. 최척전
문학	미래엔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작품 수용과 평가 (2) 최척전

<최척전>을 채택하고 있는 2011 개정 교과서는 비상교육(한)의 국어⑤와 미래엔의 문학 2종이다. 각 단위들은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2> 2011 개정 교육과정 내 <최척전> 수록 양상 및 학습목표

교과서	출판사	학습목표
국어⑤	비상교육 (한)	- 역사적 상황이 등장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작품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문학	미래엔	- 문학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다.
--	---

각 교과서의 학습목표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국어⑤ [중1-3학년군] 문학영역 성취기준**

(6)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은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된다.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에 대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접근하는 방법,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지어 접근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sup>32)</sup>

**문학 성취기준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의미를 기쁨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sup>33)</sup>

두 교과서 모두 <최척전>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도록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교과서는 모두 이를 위하여 최척과 옥영이 각각 명나라와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안남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본문으로 넣었고, 국어

32) 위의 책, p. 60

33) 위의 책, p. 135

⑤는 앞과 뒷부분의 요약줄거리를, 문학은 전체줄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본문의 학습활동이다.

<표13> 2011 개정 교육과정 내 <최척전> 수록 교과서 및 학습활동 양상

교과서	출판사	학습활동
국어⑤	비상교육 (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척과 가족들의 이동 경로 정리하기</li> <li>2. 소설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li> <li>3.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설의 의미와 주제를 파악하기</li> <li>4. &lt;최척전&gt;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과 연관 지어 의미 파악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송규진의 “한국사 탐험대”를 읽고 작품의 무대가 중국, 일본, 안남까지 확장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4-2. 1의 역사적 상황이 등장인물의 삶에 끼친 삶 정리하기</li> <li>4-3. 등장인물과 비슷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작품이 어떤 의미가 될지 써보기</li> </ol> </li> <li>5. 소설을 감상하고 등장인물 중 한명에게 편지쓰기</li> </ol>
문학	미래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척과 옥영의 이동경로 정리하기</li> <li>2. 학생들의 대화 제시문을 통해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 정리하기</li> <li>3. 옥영의 역할에 주목하여 당대 사회의 여성관과 가치를 평가하기</li> <li>4. 작품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다문화 사회의 관점에서 말해보기</li> </ol>

해당 본문을 활용하여 두 교과서는 최척과 옥영이 중국과 일본 일대를 떠돌면서 이들이 왜 헤어져야만 했는지, 조선 밖으로 벗어나야만 했는지 학습자가 당대의 전란의 상황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써 정

유재란이 당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 전반에서 당대 사회상을 주인공들의 이동과 더불어 곡진하게 그려내는, 사실주의적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전란의 영향으로 일어난 가족의 이산, 그리고 현대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이산을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의 주제 파악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를 작품의 역사적 상황에서 생각하고 유추하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작품의 감상의 폭을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보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물론 서사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러한 극적 상황 안에서의 주인공의 심리와 희망, 삶에 대한 가치와 희망의 중심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인공들이 제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전란의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가족과 결합에 대한 애정의 근본, 그 힘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는 맥락 중심적인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보다 자율적인 감상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품이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의 문학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감상의 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일정 범주의 감상 틀을 제안할 것이다.

## 2. 작가 조위한(趙緯韓)과 <최척전>의 상관성

<최척전>의 서사는 작가 조위한이 겪었던 삶의 체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조위한이 작품 말미에 서술한 것을 살펴보자.

나는 남원 주포에 우거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최척이 때때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전말을 기록하여 후세에 인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sup>34)</sup>

이를 바탕으로 하면 작가 조위한은 남원에 살 당시 최척이라는 실존 인물에게서 그의 삶을 듣고 <최척전>을 지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척전>의 배경 장소 중 하나인 남원에서 실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최척전>의 서사는 남원에서 시작하여 다시 남원에서 끝을 맺는다. 작품의 배경이 남원이 중점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작가 조위한이 임진왜란 당시 피란지로 남원을 택했고, 이곳에서 동생의 결혼과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작가 자신이 남원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는 것에서 그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의 신도비명과 행장에는 조위한이 장군 김덕령 아래에서 의병 활동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sup>35)</sup> 이처럼 조위한이 그만큼 남원과의 연이 깊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으며, 남원이 작품의 주요 배경지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최척의 심리와 조위한의 심리 역시 비슷한 점이 있다. 조위한은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와 딸을 잃는 슬픔을 겪는다. 정유재란에는 자신의 아내마저 잃게 되고 훗날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다. 그는 큰 슬픔으로 속세의 뜻을 잃고 중국으로 유랑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형의 만류로 그 뜻이 좌절되었다. 그는 명나라 병사를 만나 중국의 소주와 항주 사이를 함께 다니기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작가의 상황을 <최척전>의 최척에 투영해 본다면 모든 가족을 잃고 중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최척의 마음과 행동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인물들이 그토록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이처럼 작품의 인물들과 작가의 심리적 혹은 지리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최척과 옥영의 혼사 장애는 조위한의 동생 조찬한의 결혼 일화와도 비슷한 면이 있다. 먼저 최척과 옥영이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최척이 글공부를 하러 간

34)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p. 342. “余流寓南原之周浦, 陟時來訪余, 道其事如此 請乃記其顛末, 無使湮沒.”

35) 위의 책, p. 354. “先時十餘年 倭寇猶未平 嘗從金將軍德齡試軍旅事”(『神道碑銘』), “嘗流寓浩南屬倭寇未靖邊搖用兵 公遂從義兵將金德齡陣中”(『行狀』)

곳에 옥영이 피란을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찬한이 아내를 만난 것과 비슷하다. 조찬한은 남원에 임진왜란을 피해 왔다가 그 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조위한, 조찬한 형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최척과 옥영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결핍이라는 상황 역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조위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었고, 조찬한의 아내는 부모 모두 없었다. 최척과 옥영 역시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조위한은 최척과 옥영의 결혼과 인물의 상황들을 자신의 동생 사이에서 영향을 받아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14> 조위한의 동생 조찬한과 최척의 결혼 비교<sup>36)</sup>

	조찬한	최척
결연시기	전쟁 중 계사년(癸巳年,1593), 봄	전쟁 중 계사년(癸巳年,1593), 겨울
고향	서울의 반석방(盤石坊)	남원의 만복사 동쪽
부모관계	아버지 없음	어려서 어머니를 잃음
부인	고흥 유씨	옥영
부인 고향	전라도 나주	서울 청파리
부인 부모	부모 없이 오라버니가 양육	일찍 부친을 잃음
기타	임진왜란 때 조찬한이 피난 왔다가 결연함	임진왜란 때 옥영이 피난 왔다가 최 척을 만나서 결연함

조찬한과 최척의 결혼 시기가 매우 유사하고, 둘의 결연이 피난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결핍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점과 그들의 부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점 역시 비슷하다. 위와 같은 조위한의 동생

36) 위의 책, p. 349.

의 상황이 작품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애정전기소설의 성격과 <최척전>

《금오신화》의 애정전기소설적 특징을 잇고 있는 <최척전>의 전반부는 구애와 이를 성취하는 서사이다. 최척과 옥영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쪽지를 주고 받는 과정은 그 삽화 자체로 설러가 주장했던 감성충동과 이성충동의 경계를 보여준다. 먼저 최척과 옥영의 첫 만남을 살펴보자. 최숙은 아들 최척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무뢰한 짓이나 하고 다닌다’며 글공부를 위해서 정생원에 집에 보낸다. 정생원의 집에는 옥영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최척이 글공부 하는 것을 엿보다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쪽지를 건넨다.

하루는 정생원이 식사 중이라 아직 나오지 않고 최척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홀연 창문 틈으로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최척이 쪽지를 주워 보니 시집 못 간 여자가 짝을 구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인 《시경(詩經)》 <표유매>의 마지막 장이 적혀 있었다.

최척은 마음과 혼이 날아갈 듯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튿날 밤에 여인의 방에 뛰쳐 들어가 몰래 비연을 껴안듯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누우치고 고려 때 김태현의 고사를 떠올리며 스스로 경계하였다.<sup>37)</sup>

최척은 옥영의 쪽지를 보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충동을 보인다. 그러나 최척이 이때 떠올린 것은 바로 ‘김태현의 고사’이다.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김태현은 어렸을 적 공부를 하던 당시 청상과부로부터 구애의 쪽지를 받고 다시는 그 집에 공부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인간이 욕구하는 전반의

37) 박희명, 앞의 책, p. 16. “一日, 上舍方食不出, 陟獨坐誦書, 忽然窓隙中, 投一小紙, 取而視之, 乃書標有梅末章, 陟心魂飛越, 不能定情, 思欲昏夜唐突, 以窺而抱, 卽悔之, 以金台鉉之事自警, 沉吟思量, 義慾交戰.”

것을 두고 감성충동이라고 보는 쉐러의 견해<sup>38)</sup>에 따르면 최척 역시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이 상태를 김태현의 고사라는 문학적 결과물을 통해 잠시 억제하고 충동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문소설 중 애정전기소설의 경우, 현대의 소설과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서사 장르에 시가 삽입된다는 점이다. 최척이 의병으로 파병되고 옥영의 어머니 심씨가 양씨에게 옥영을 시집보내려 하면서 옥영이 자살을 결심하는 등 우여곡절의 끝에 두 사람의 결혼이 결국 성사된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최척과 옥영 부부는 장육불의 점지를 받고 아들 몽석을 낳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달이 뜨고 꽃이 아름다운 밤, 최척은 감흥에 이끌려 통소를 분다.

때는 늦은 봄인데다 맑은 밤이었다. 산들바람이 건듯 불고 새하얀 달빛은 환한데, 꽃잎이 흩날려 옷을 때리고 은은한 향기가 코를 스쳤다. 최척이 향아리에서 술을 떠다 잔 가득 따라 마시고 책상에 기대 앉아 두어 곡조 통소를 부니 소리의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옥영이 한 참을 묵묵히 앉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 지경에 이르니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마침내 시 한편을 지어 읊었다.

왕자교 통소 불 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봉래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sup>39)</sup>

이와 같은 삽화는 최척과 옥영의 심미적 체험의 상황을 보여준다. 최척과

38) “하나는 야만적인 경우로서, 감정만 앞세우고 원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이고(=거친 인간), 다른 하나는 원칙만을 앞세워서 섬세한 감정의 측면을 깃잡아버리는(=무기력한 인간)태도”(안인희, 1995:178-179)에서 전자를 감각 충동, 후자를 이성 충동에 각각 대입할 수 있으며, 최척이 쪽지를 받고 느낀 충동이 바로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박희병, 위의 책, p. 30. 時當暮春, 清夜將半, 微風乍動, 素月揚輝, 飛花撲衣, 暗香侵鼻, 開缸澆酒, 引滿而飲, 據案三弄, 餘音嫋嫋. 玉英沉吟良久曰: “妾素惡婦人之吟詩者, 而到此情境, 不能自己”. 遂詠一絕曰: 王子吹簫月欲低, 碧天如海露淒淒, 會須共御青鸞去, 蓬島烟霞路不迷.

옥영은 앞서 경험했던 결혼에 대한 불안함과 불안정적인 감정이 종료되고 내적 균형을 이루면서 통소를 연주하고 시를 읊으면서 예술로 승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최척과 옥영의 서사에서의 이 두 주인공의 심미적 상태를 고찰했다. 이것을 그저 관망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감각하고 체화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쉐러의 '유희충동'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대적 괴리는 있지만 사랑과 구애, 이를 위한 우여곡절의 서사는 고금을 막론하고 감성의 보편적 부분을 건드리면서 학습자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 <최척전>의 전반부는 인간 보편적 감성의 측면, 흥미의 측면에서 심미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4. <최척전> 속에 그려진 삶의 의미

##### 4.1. 가족 공동체의 지향

<최척전>의 서사를 범박하게 이야기 한다면 전란 속의 이산가족이 고향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서사 전개 상 크게 두 가족이 등장한다. 최척 일가와 홍도와 진위경 부녀가 그것이다. 이 두 가족은 남원에서 다시 만나면서 결국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로 확장하게 된다. 최척을 중심으로 아버지 최숙, 부인 옥영, 옥영의 어머니 심씨, 최척과 옥영의 아들 몽석과 몽선이 최척 일가의 구성원이다. 몽선이 중국 여인 홍도를 만나 혼인하게 되면서 훗날 진위경까지 최척 일가의 구성원이 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명나라 출병까지 세 번의 전란에 걸쳐 최척 일가는 동아시아 각국으로 흩어진다. 서사의 중심인 최척과 옥영의 유랑 일대기를 살펴보면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 상황을 살아내게 하는 희망이다. 고향이 왜적에게 파괴되고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

황에서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余有文)을 따라 나선다. 최척과 의형제까지 맺은 여유문은 그에게 자신의 누이동생을 시집보내고 싶어 한다.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편안히 잘 살 공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sup>40)</sup>

최척은 자신의 은인과의 같은 여유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여유문이 더 이상 혼인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호히 거절한 최척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는 고향 땅에서 희망을 잃고 무작정 여유문을 따라 나섰지만, 결코 가족과의 재회라는 한 줄기 끈을 놓지 않은 것이다.

한편 옥영의 서사를 살펴보면 그녀의 모든 좌절은 자신의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에 비롯된다. 그녀는 옥영 역시 돈우(頓于)라는 왜병과 장사를 하며 유랑 중이었다. 옥영이 처음 돈우에게 붙들려 갈 때, 그녀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녀가 자살하려 할 때마다 돈우가 말려 죽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옥영이 삶의 희망을 잃을 때마다 나타난 것은 바로 장육불(丈六佛)이었다. 장육불이 옥영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해 걱정하던 때였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네 정성이 가룩하여 뛰어난 사내아이를 주려 한다. 아 이에게 필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sup>41)</sup>

40) 박희병, 앞의 책, p. 38 是時, 陟在姚興, 與余公結爲兄弟. 欲以其妹妻之, 陟固辭曰. “我以全家陷賊, 老父弱妻, 至今未知生死, 終不得發喪服衰, 其敢晏然婚娶以爲自逸之計乎?” 余公義而止之.

41) 박희병, 앞의 책, p. 29. “我萬福寺佛也 嘉爾誠敬, 錫以奇男子, 生必有異相”

그리고 돈우에게 붙잡힌 옥영이 물에 빠져 자살하려 할 때에도 나타난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sup>42)</sup>

옥영은 꿈을 끈 뒤로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삶을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목숨을 버리지 않은 보답이라도 하듯 옥영은 베트남에서 최척과 재회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아들 몽선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한다. 명나라 오세영(吳世英)에게 서기로 발탁된 최척은 다시 전장에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옥영은 전장에 나가 최척이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생각하며 자결을 시도하려 하지만 최척이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 말하면서 옥영을 안심시킨다. 둘째 아들 몽선, 그의 며느리 홍도와 같이 살아가던 옥영은 명나라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도 자살을 결심한다. 이 때 다시 옥영을 붙드는 건 장옥불이다.

이때 항주에 있던 옥영은 출정한 명나라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척이 싸움터에서 희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더니 마침내 죽기로 작정하고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옥불이 꿈에 나타나 옥영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sup>43)</sup>

의지의 여인처럼 보였던 옥영이 유일하게 좌절을 보이는 때는 바로 자신의 안정된 가정이 실행되지 못했을 때이다. 그녀는 최척에게 먼저 구애를 할 정도

42) 박희병, 앞의 책, p. 37. “我萬福寺佛也。愼無死! 後必有喜”

43) 위의 책, p. 54. 當是時, 玉英在杭州, 聞官軍陷沒, 以爲陟橫死戰場無疑也, 晝夜哭不絕聲, 期於必死, 水漿不入於口. 忽於一夕, 夢見丈六佛, 撫頂而言曰, “愼無死! 後必有喜”

로 당시 시대상에서 보이기 힘든 적극적 의지의 인물이며, 힘든 유랑 생활 중에서도 잘 적응하여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녀는 온전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그녀가 가족의 의미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몽선의 아내이자 최척과 옥영의 며느리인 홍도(紅桃) 역시 온전한 가족을 염원하는 인물이다. 홍도는 중국인이지만 조선에 있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조선인인 몽선과의 결혼을 결심한 인물이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조선으로 파병되어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마저 유년에 죽어 이모의 손에 길러졌다.

홍도는 이모 집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이역 땅에서 돌아가셔서 얼굴 한번 뵈지 못한 것을 늘 애달파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라에 꼭 한번 가서 초혼(招魂)하고 왔으면 하여 밤낮으로 한이 가슴에 사무쳤으나, 여자의 몸으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몽선이 아내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모와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씨 닻 며느리가 되어 조선 땅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sup>44)</sup>”

이러한 홍도의 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옥영이었다. 옥영은 그녀를 기특하게 여겨 며느리로 맞이하여 같이 조선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듯 <최척전>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완전한 가족공동체로의 지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들에게 결국 가족이란 전쟁의 참혹함을 이겨낼 방편이었다. “전란은 인간의 존재기반을 파괴하며 인간의 의식을 파편화 시키지만 가족의 결속과 인간의 공동체 의식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구심적으로 정돈할 수

---

44) 위의 책, p. 46. 紅桃養於其姨家，常痛其父歿於異域，而生不知其面目也，願一至父死之國，復哭而來，耿耿寃恨銘于肺腑，而身為女子，計不知所出，及聞夢仙求婦，議於其姨曰，“願得爲崔家婦，而冀一至於東國也”

있게 한다. 절박하고 고단한 현실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혈연이나 공동체 같은 인간관계로 형성된 가족뿐이다.”(김문희, 2000:186).

한반도가 아직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의 정서를 추체험 해볼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나 언론 등에서 다뤄지는 이산가족의 모습은 아직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 원래 가족이었지만 분단의 현실에 막혀 각자의 현실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하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혹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온전한 가족의 형태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등의 생각과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최척전>의 인물들이 본래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가족 공동체에 두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들이 다시 온전한 가족으로 합일되었을 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가족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범죄에 있어서도 존속 살해 등의 사건들이 어렵게 보이지 않는 지금의 사회에서 핏줄로만 연결되었다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본원적 물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시의성을 담지하는 <최척전>의 요소는 가족 이산의 경험을 학습자가 상상해보고 실제 존재하는 이산가족의 형태를 보면서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심미적 체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척전>이 보여주는 하나의 희망, 가족의 의미를 되짚는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주제가 되며 삶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4.2.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류애

17세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었다. 한·중·일

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이 사건은 서로를 적국으로 두는 긴장의 시국이었다. 그러나 <최척전>에서의 이방인들을 보면 적국의 사람을 대하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국적, 전쟁, 이념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최척전>의 등장 인물 모두 같은 시대적 비극을 공유한 사람들인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유랑의 두 축인 최척과 옥영은 모두 자신의 생존에 이웃 국가의 사람들이 있었다.

임란이 일어나자 가족들과 피신하던 최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자 적병에게 가족 일가가 모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자살 기도도 실패하고 망연자실하여 앉아 있는 최척 옆에 명나라의 장수인 여유문이 말을 찢기고 있었다. 이에 최척은 그와 함께 중국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나는 오총병의 여유문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 만한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소?”<sup>45)</sup>

여유문은 처음 본 최척에게 측은지심으로 단번에 동행할 것을 수락한다. 여유문은 최척를 가족처럼 여겨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누이와 결혼 시킬 생각까지 한다. 최척이 명나라 장수인 여유문을 따라 나선 것은 자기 가족을 모두 잃고서 더 이상 고향 땅에서의 아무런 희망도, 삶의 의지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기반을 모두 앗아가 버린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조선은 오히려 최척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었다. 그러한 최척에게 여유문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여유문이 죽고 나서 후에 만난 사람인 송우라는 자 역시 여유문 만큼이나 최척의 삶을 지탱해주는 인물이었다. 베트남에 장사를 하러 간 최척은 그 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옥영을 만난다. 돈우라는 자 밑에서 일하는 옥영을

45) 위의 책, p.35. “吾是吳總兵之千總余有文也. 家在浙江姚興府, 雖貧, 足以自食. 人生貴相之心, 遊息適意, 無論遠近, 爾既無家累之戀, 何必塊守一方, 蹴蹴靡所騁乎?”

보고 송우는 최척 대신 옥영의 몸값을 지불하여 옥영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송우의 모습은 그가 여유문 못지않게 최척에게 은인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는 작게 서술되어 있지만 베트남 장사에 동행했던 두홍이라는 인물은 최척 일가가 왜란으로 당했던 일들을 듣고 분연해 마지않기도 한다. 송우와 두홍에게 최척은 우연히 만난 이방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최척의 일에 공감한다. 그리하여 옥영과의 재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돈을 내어주려 하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이때 옥영은 왜병 돈우와 장사를 하며 동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옥영은 살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돈우 밑으로 들어갔지만 희망을 잃은 채 언제나 죽을 생각을 하고 억지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옥영이 삶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돈우는 그녀의 자살을 말린다. 훗날 그녀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동행하여 장사를 하러 다닌다. 그러다가 베트남에서 최척과 만난 옥영을 보고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린다. 송우가 그에게 몸값을 치르려고 하자 돈우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듯이 지냈지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건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내 비록 어리석다 하나 목적은 아니니,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46)

처음에 옥영은 죽지 못해 돈우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죽으려 할 때마다 불교신자였던 돈우로 인해 자살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한 그녀에게 삶의 제반

---

46) 위의 책, pp. 44-45. “我得此人, 四年于茲, 愛其端慤, 視同己出, 寢食未嘗少離, 而終不知其是婦人也. 今而目觀此事, 天地鬼神猶且感動, 我雖頑蠢, 異於木石, 何忍貨此而爲食乎?”

을 이루어 준 것은 돈우였다. 돈우에게 옥영은 낯선 이방인일 뿐이며 옥영에게는 삶을 파괴한 적대국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옥영을 가족처럼 대하고 삶의 유대를 형성하기까지 돈우가 보여준 것은 다른 나라, 이방인이라는 배타적 시각이 아닌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돈우와 이별하고 함께 살게 된 최척과 옥영이지만 누르하치의 요양 침투로 명나라 황제는 다시 군대를 꾸릴 것을 지시한다. 이에 최척은 명나라 교유격이라는 장수에게 징병되어 다시 전장으로 나갔다가 누르하치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아들 몽석과 포로 감시인 오랑개 노인을 만나게 된다. 포로 감시인은 본래 평안북도 삭주 사람으로 몰래 최척과 몽석을 풀어준다.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 만난 중국인 진위경 역시 그러하다. 최척의 등에 종기가 났을 때 그가 길에서 만난 진위경은 침술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최척을 구해주는 인물이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최척과 옥영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이방 국가의 사람들이었다. 이들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와 상황들은 서로가 적대 전쟁국의 사람이라는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최척과 옥영이 운이 좋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우연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연적 만남의 기저에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여러 전란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국경을 두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도 하나의 '사람'을 보는 인간적 애정을 가진 인물들이었기에 최척과 옥영은 비극 안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최척전>의 이러한 시선은 현대의 다원적 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매우 의미하다. 실제로 지금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혐오주의, 배타주의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최척과 옥영의 인연들은 현대사회에 환기할 만한 부분이다. 시대가 흐르고 다음 세대로 이행해 갈수록 국가

라는 경계와 한민족이라는 분절된 의식이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과정 속의 과도기라고 할 때 <최척전>의 이러한 면면은 그러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에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너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간이라는 의식,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동류애와 측은지심, 연대의 서사가 또 하나의 <최척전>의 가치이다.

#### 4.3. 현실을 극복하는 강인한 삶의 자세

<최척전>의 서사가 진행될수록 두드러지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옥영이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녀의 적극적 의지는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 최척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녀는 최척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경》의 <표유매>를 인용하여 쪽지를 건내는 대답함을 보인다. 옥영의 쪽지를 받은 최척이 이에 답장하자, 옥영은 다시 회신한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여자로서의 정숙한 행실을 조금밖에 익히지 못한 터에 불행히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난리를 만나 홀어머니를 모신 채 형제도 없이 남쪽 땅을 떠돌다가 겨우 친척 댁에 의탁하여 살게 되었습니다.[인용자 생략] 제 걱정은 어찌하면 훌륭한 남편을 만날까 하는 것이랍니다. 저의 백 년 기쁨과 괴로움이 남편에게 달려 있으니, 만일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그 사람을 우러르며 일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낭군을 뵈니 말씀하시는 기운이 온화하고, 행동거지가 한가롭고도 고아하며, 정성스럽고 믿음직한 빛이 얼굴에 가득하시더군요. 그러니 어진 남편을 구하고자 한다면 낭군을 빼고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낭군의 첩이 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47)

47) 위의 책, pp. 20. “妾生長輦轂之下，粗識貞靜之行，而不幸早失嚴父，生丁亂難，獨奉偏慈，終鮮兄弟，漂

당시 유교 이념에 따르면 부인이 남편 될 사람을 간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옥영은 대담하게 최척이 남편감으로 적절한지 평가한 대목을 언급하는가 하면, 혼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옥영의 적극성으로 혼인 약속을 성사시켰으나 최척이 임진왜란으로 인해 의병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약속한 혼인 날짜를 지킬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심씨는 이웃집 부자인 양씨에게 혼인을 시키려 한다.

“최생이 의병으로 나가 의병장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소식이 끊어진 것이지 일부러 혼약을 저버린게 아니건만, 그분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약속을 깨 버리다니 어찌 이리도 의롭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만약 제 뜻을 꺾으려 하신다면 죽을지언정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리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sup>4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씨가 양씨와의 혼인을 관철시키자 옥영은 자결시도를 함으로써 최척과의 인연을 맺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옥영의 의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과 빨빨이 흩어지고 둘째 아들 몽선과 그의 며느리 홍도와 같이 중국 항주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누르하치가 조선 포로를 모두 살려주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몽선은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기를 기다리자고 하지만, 옥영은 직접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바다를 건널 뚝단 배를 만들기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지시한다. 한 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몽선을 두고 옥영은 다음과 같이 설득한다.

泊男土，僑寄崇黨。(인용자 생략) 然而有所患者，絲蘿所托，必在喬木，百年苦樂，實由他人，荷非其人，豈可仰望而終身？近觀郎君，辭氣雍容，舉止閑雅，誠信之色，藹然於面目，若求賢夫，捨子伊難？與其爲唐人之妻，寧爲夫子之妾，而薄命崎嶇，恐不得當也。”

48) 위의 책, p. 27. “崔從義陳，行止係於主將，非故負約，而不俟其言，徑自破約，不義孰甚？若奪兒志，之死靡也。母也天只，不諒人只。”

“물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지만 내겐 경험이 많단다. 일본에 있던 시절 배를  
집 삼아 봄이면 북건성·광동성 일대에서, 가을에는 유구에서 장사를 했어. 거센  
바람,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조수를 점치는데 익숙하지.  
그러니 바람과 파도의 험난함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항해의 온갖 위험도 이겨  
낼 수 있단다. 혹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해결할 방도가 없  
겠니?”<sup>49)</sup>

옥영은 전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던 유랑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을 대처할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 본 듀이의 경험론에 비추어 본다면 심미적 삶의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옥영  
의 앞선 경험은 괴로웠던 과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유랑의 경험 그 자체  
는 전쟁의 참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의 의지로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 경  
험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체득한 삶의 지혜와 더불어  
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신적 여유와 마음  
가짐, 긍정성은 훗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고양시키고 이를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옥영이 겪은 하나의 심미적 체험이다. 누구에  
게나 인생의 질곡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고통의  
단면에 그쳐버리거나 혹은 유의미한 경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자는  
위와 같은 옥영의 면모를 확인하고 추체험함으로써 또 하나의 학습자 자신의 심  
미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49) 위의 책, p. 57. “水路艱難, 我多備嘗. 昔在日本, 以舟爲可, 春商閩, 廣, 秋販琉球, 出沒於鯨波駭浪之中, 占  
星候潮,, 涉歷已慣. 風濤險易, 我自當之, 舟楫安危, 我自御之. 脫有不幸之患, 豈無方便之道?”

## IV. 심미적 감성 역량과 <최척전> 교수 · 학습 방법

2015 개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심미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학습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탁월한 교수 모형이다. 일정한 역량에 얼마만큼 도달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이 실행되는 절차를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 1. ‘백워드 설계’의 이해

‘백워드(backward) 설계’는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수업 모형이다. 전통적 수업의 절차가 ‘목표 - 내용 - 평가’의 순서였다면, 백워드 설계는 수업의 절차를 ‘목표 - 평가 - 내용’으로 설정하고 평가를 중점에 두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백워드 설계는 학습자의 제대로 된 이해를 강조한다. 학습 상황에서의 이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과 다르다. 외국어 문장을 번역하였지만 그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수학 공식은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수학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 원리는 알고 있지만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위에서 제시한 상황은 외국어, 수학 공식,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로 그것들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해라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과 다르며 이러한 분절되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정신구조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백워드 설계에서의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자신 안에서 구조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이해’의 범주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① 유의미 추론으로서의 이해

효과적인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통해서 기능과 사실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

② 전이 가능성으로의 이해

알고 있는 것을 단지 회상,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지식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 전문가 맹점으로부터 도출한 이해

피상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학생 자신의 지적인 흥분을 통해 큰 개념을 영속적으로 획득하는 것<sup>51)</sup>

이상의 설명을 보면 이해의 개념을 주어진 학습 지식의 내용을 학습자가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다른 개념에 연계시킬 수 있고,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서 점층적인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본 연구가 심미적 체험을 평가의 척도에 놓을 수 있는가에 대

50) 강현석 · 이지은, 『백워드 설계를 위한 이해와 실천 : 교실혁명』, 학지사, 2016, pp. 25-26

51) 위의 책, p. 29.

한 한계를 극복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워드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해당 학습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모형의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올바르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목적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본 모형은 이와 같은 ‘이해’에 도달하기까지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2. ‘백워드 설계’의 절차

### 2.1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첫 단계인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는 설계 과정에서 목표 설정에 해당한다. 단편적인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가 해당 교육 내용을 지속적이면서도 다른 학습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는 ‘주요 아이디어’, ‘본질적 질문’, ‘핵심 지식과 기능’의 단계를 거쳐 목표를 도출할 수 있다. ‘주요 아이디어’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초점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 개념, 원리와 과정을 의미한다(강현석 · 이지은, 2016:83).” 또한 주요 아이디어는 한 과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를 학습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본질적 질문’과 ‘핵심 지식과 기능’을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 질문’은 학습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가 심층적인 탐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촉발시키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핵심 지식과 기능’은 “단원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기 바라는 명제적 지식(핵심 지식)과 절차적 지식(기능)이다(강현석 · 이지은, 2016:105).”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15>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 1단계 :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sup>52)</sup>

1단계 -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p><b>목표 설정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에서 초점을 두는 목표(예, 성취기준, 코스나 프로그램 목표, 학습 성과)는 무엇인가?</li> </ul>	
<p><b>이해</b></p> <p>학생들은 다음을 이해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li> <li>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바라는 구체적인 이해는 무엇인가?</li> <li>예상되는 오개념은 무엇인가?</li> </ul>	<p><b>본질적 질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구와 이해, 학습의 전이를 유발시키는 질문은 무엇인가?</li> </ul>
<p><b>학생들은 알게 될 것이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단원의 결과로 학생들이 획득하게 될 핵심 지식과 기능은 무엇인가?</li> <li>학생들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li> </ul>	<p><b>학생들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b></p>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은 추상적이거나 그 범위가 매우 넓거나 혹은 좁은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교수자가 성취 기준을 보면서 목표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구체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백워드 설계가 중시하는 영속적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성취기준에서 교사가 그것을 추출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본질적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을 영속적 이해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 질문<sup>53)</sup>은 단편적인 학습 지식을 위한 질문

52) 위의 책, pp. 47-48,

53) 본질적 질문이 갖는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참되고 적절한 탐구를 주요 아이디어와

이 아니라 영속적 이해로 학습자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본질적 질문까지 구성했다면 핵심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핵심 지식과 기능은 말 그대로 해당 학습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 요소이다. 이것은 영속적 이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여섯 가지의 이해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16>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의 개념과 정의<sup>54)</sup>

이해의 측면	정 의
설 명	사실이나 사건, 행위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능력
해 석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
적 용	지식을 다양한 상황이나 실제적인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관 점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
공 감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능력
자기지식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은 2단계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단계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평가와 수행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

## 2.2.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두 번째 단계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단계는 앞서 설정한 목표를

---

핵심 내용으로 야기한다. 둘째, 깊은 사고, 생동감 있는 토론, 지속적인 질문,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자극한다. 셋째, 학생들이 대안을 고려하고, 증거를 평가하며,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대답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주요 아이디어, 가정, 선행 수업에 대하여 중요하고 지속적인 재고를 하도록 자극한다. 다섯째, 다른 상황이나 교과에 전이를 위한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창안하도록 한다." (강현석·이지은, 2016:94) '

54) 강현석·이지은, 앞의 책, pp.124-131.

토대로 학습자가 제대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준거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이 단계를 거쳐 학습 과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이해 목표에 부합하는 증거 종류 결정하기’, ‘준거, 루브릭, 모범사례 결정하기’,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의 세 요소를 거쳐 실행된다. ‘이해 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7>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 2단계 :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sup>55)</sup>

2단계 -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p><b>수행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어떤 수행과제를 통해 바라는 이해를 증명할 것인가?</li> <li>• 이해의 수행을 어떤 준거로 평가할 것인가?</li> </ul>	<p><b>다른 증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바라는 결과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다른 증거(퀴즈, 시험, 학문적 단서, 관찰, 숙제, 저널)는 무엇인가?</li> <li>•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자기평가하고 반성할 것인가?</li> </ul>

구체적인 수행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제시한 학습 이해의 측면 요소를 토대로 교수자는 교과 및 단원 특성과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 이것은 GRASPS 모형을 통하여 구체화 할 수 있다. GRASPS 모형은 학습자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실제적인 상황에 대입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하위 요소를 목표, 역할, 청중, 상황, 수행, 기준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설정하여 이해를 피상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대입해볼 수 있게 된다.

<표 18> GRASPS 절차의 요소와 내용<sup>56)</sup>

55) 위의 책, p. 48

56) 위의 책, p. 144.

요소	내용
목표 (Goal)	당신의 과제는 _____이다. 목표는 _____하는 것이다. 문제나 도전은 _____이다.
역할 (Role)	당신은 _____이다. 당신은 _____을/를 요구받는다. 당신의 일은 _____이다.
청중/대상 (Audience)	당신의 고객은 _____이다. 대상은 _____이다.
상황 (Situation)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맥락은 _____이다. 도전은 _____을/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수행 (Performance)	당신은 _____하기 위해 _____을/를 만들 것이다. 당신은 _____하기 위해 _____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준 (Standard)	당신의 수행은 _____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작품은 _____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성공적인 결과는 _____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행 과제가 마련되면 이후 앞서 설정했던 목표에 부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백워드 설계’는 루브릭(Rubric)을 제안한다. 루브릭은 수행 과제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서 총체적 루브릭과 분석적 루브릭이 있다. 루브릭의 평가 틀이 세세하고 정교할수록 수업의 방향과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하여 맥타이와 위긴스는 분석적 루브릭 틀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루브릭 분석 틀 평가 기준과 학습자의 평가 도달 정도, 서술의 내용이 포함된다. 평가 방향은 앞서 제시했던 여섯 이해의 측면 요소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 2.3. 학습 경험 계획하기

목표와 이를 위한 평가의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면 이제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이다. 마지막 단계인 ‘학습 경험 계획하기’ 단계는 다음과 같은 WHERETO 모형을 토대로 구성할 수 있다.

<표 19>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 3단계 : 학습 경험 계획하기

3단계 - 학습 경험 계획하기
<b>학습활동</b> 학생들이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과 수업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W = 단원이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기대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가? 학생의 사전 지식과 흥미를 교사가 이해하도록 돕는가? • H = 모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지하는가? • E =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학생들이 주요 아이디어를 경험하고 이슈를 탐구하도록 돕는가? • R =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을 재고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 T = 학습자의 서로 다른 요구와 흥미, 능력에 맞추도록 하는가? • O = 효과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괄된 학습 참여를 최대화하도록 조직하는가?

WHERETO 절차의 하위 항목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0> WHERETO 절차의 하위 항목과 의미<sup>57)</sup>

요소	의미
W (where, why)	학생들에게 단원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라.
H (hook, hold)	도입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라.
E (explore, equip)	학생들이 중요한 개념을 경험하고 주제를 탐구하도록 준비하라.
R (rethink, reflect, revise)	학생들에게 주요 아이디어를 재고하고, 과정 속에서 반성하고 활동을 교정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라.
E (evaluate)	학생들에게 과정과 자기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라.
T (tailor)	개인적인 재능, 흥미,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O (organize)	진정한 이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조직하라.

교사는 이와 같은 WHERETO 모형을 가지고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3,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최척전> 교수 · 학습

본래 ‘백워드 설계’ 모형은 수업의 대단원 하나를 이루는 구성으로 개발된 절차이다. 이에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 학습자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이다. 본 연구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중점으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함에 따라서 절차를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연구의 방향에 맞게 절차를 소략하고 간

57) 위의 책, p.187.

소화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가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에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래 절차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작품을 보다 심미적으로 체험하며 이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에 착안하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 3.1. 1단계 : 학습 목표 설정하기

이 부분은 본 연구가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에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작품을 보다 심미적으로 체험하며 이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표 21> <최척전>의 심미적 감성 역량 교수 · 학습 1단계 : 학습 목표 설정하기

<p><b>목표 설정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다.</li> </ul>	
<p><b>이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을 읽고 작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li> <li>• &lt;최척전&gt;의 서사구조가 가지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li> <li>• &lt;최척전&gt;을 읽고 느낀 자신만의 ‘아름다움’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li> <li>• &lt;최척전&gt;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li> </ul>	<p><b>본질적 질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미적 경험이란 무엇인가?</li> <li>• 문학을 통해 심미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li> <li>• 심미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태도로 작품을 읽는 것인가?</li> </ul>
<p>학생들은 알게 될 것이다.</p>	<p>학생들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 <최척전>에는 다양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 학생들은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제시했던 1단계 성립 과정을 본 연구의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을 통해 심미적으로 경험한 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해’ 부분의 핵심이다. ‘심미적 경험’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일련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작품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심미적 체험임을 상기시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아름다움’은 학생 자신만의 것이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간 부분이 어떤 학생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지점일 수 있다.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이해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작품의 의미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본질적 질문’의 하위 질문들의 선정은 앞서 ‘이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 자신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이 무엇인지 환기할 수 있도록 심미적 체험의 정의에 대한 것으로 하였다. 또한 그것이 학습자 자신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읽는 것이 심미적으로 읽는다는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서 단순히 작품을 형식적인 인물-사건-배경, 주제 등 피상적인 감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학습의 목표 토대로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서술어를 사용하여 독려한다. 학습자는 이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련의 평가 항목들을 확인하면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 본 연구의 방향을 반영하여 항목을 취사선택하고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

다.

<표 22> 심미적 경험의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

이해의 측면	작품을 읽고 심미적 체험을 한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행
설명	자신이 느낀 작품 속의 아름다움과 감상을 표현한다.
해석	소설 속에 내재돼 있는 작가의 의식이나 맥락적 의미를 찾는다.
적용	작품에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보는 활동을 보여 준다.
관점	자신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공감	다른 사람의 작품 감상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

‘설명’은 학습자가 작품을 보고 느낀 것을 막연히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해석’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능력이다. 문학 작품은 작가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 예술인데 특히 소설은 긴 서사 안에서 작가 의식과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을 심도 있게 담아내는 장르이므로 학습자들은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의미를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적용’은 문학작품의 의미와 연관된다. 문학작품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독자(학습자)가 내적으로 경험한 것을 실제의 맥락에 적용했을 때이다. 작품에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실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유의미한 능력이 될 수 있다. ‘관점’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중점에 두는 항목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은 주체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는 작품을 느끼는 과정 그 자체가 주관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인공의 처지나 상황을 달리 생각해봄으로써 학습자 자신만

의 관점을 기르는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공감’ 항목은 학습자 자신이 느낀 작품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감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상을 듣고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타인과의 공유는 감상의 폭과 작품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제가 되므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지식’ 항목은 본인의 선행 지식에 대한 반성적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는 학습의 지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의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 3.2. 2단계 : 이해의 증거 결정하기

이해의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과제를 만들기 위해 GRASPS 모형의 절차를 활용하여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최척전>에 나타난 심미적 경험과 GRASPS 설정 내용

요소	내용
목표 (Goal)	<최척전>을 읽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껴 본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제각기 다르지만 자신이 아름다움을 느낀 지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타인과 자신의 감상을 공유하고 그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자신의 삶에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최척전>을 읽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해보자.
역할 (Role)	당신은 학교 신문 동아리 기자이다.
청중/대상 (Audience)	대상은 학교 학생들이다.
상황	학교 신문의 ‘문화’ 면은 매월 한 권의 소설을 소개하고 간단히 서평

(Situation)	하는 기획이 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보다는 기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사를 작성한다.
수행 (Performance)	당신은 <최척전>을 읽고 자신이 느낀 작품의 재밌는 부분과 자신이 아름답다고 가치가 숨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확인한다. 어디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서술하고 간단한 작품의 배경과 작가의 정보를 소개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작품과의 연관성을 유추해본다.
기준 (Standard)	기사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의 간단한 줄거리와 소개하고 싶은 부분</li> <li>- 자신이 재밌고 아름답다고 느낀 부분에 대한 이유</li> <li>- 작품의 사회적 배경, 작가와 &lt;최척전&gt;과의 관련성</li> </ul>

자신이 학교 신문의 기자가 되어 <최척전>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수행 과제를 부여한다. 수행 내용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최척전>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서술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기준은 독자가 느낀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기자는 대중에게 자신의 글로 <최척전>을 소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작품 감상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되 자신의 생각으로 연관성을 유추해야 한다.

기사이지만 책 소개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르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과 그 근거들을 작품 속에서 찾아내고 어떠한 작가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작품이 만들어졌을 지 자신의 생각으로 여백을 메울 수 있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설정하였다.

학습자의 수행 과제가 마련되었다면 학습자 스스로 이를 점검하고 수업 방향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평가 루브릭 제시한다.

<표 24> <최척전>에 나타난 심미적 경험 평가 루브릭

	잘함	보통	부족함
스스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	<최척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점)	<최척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이를 서술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 (4점)	<최척전>의 줄거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3점)
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하였다. (5점)	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배경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감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4점)	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찾는 것이 부족하다. (3점)
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작품을 읽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점)	작품을 읽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8점)	작품에 나타난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 (6점)

먼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심미적 감성 역량의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추출한 <최척전> 감상의 틀을 토대로 하여 이것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의 틀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와 표현으로 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두고 평가의 척도를

두었다. 다음으로는 작품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항목이다. 이것은 ‘해석’에 해당하는 측면으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심미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를 알 수 있는지 구성하였다. 마지막 항목은 본 연구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습 요소로, 작품 감상의 주체를 완전히 학습자에게 맡겨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감상의 근거를 ‘올바르게’ 찾았는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신이 느낀 작품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것은 이해의 측면 중 ‘설명’과 ‘관점’에 해당되는 항목이면서 세 가지 평가 항목 중 학습자의 심미적 경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평가 점수 배분을 크게 적용하였다.

### 3.3. 3단계 : 학습 실행 계획하기

평가 계획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직접적인 교육의 과정이 실행되도록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WHERETO 절차를 적용한다. WHERETO는 수업 계획과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고정된 모형은 아니다. 수업 과정과 방향에 따라서 각 요소는 여러 개가 함께 실행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25> <최적전>에 나타난 심미적 경험과 WHERETO 설정 내용<sup>58)</sup>

요소	개념 및 설정 내용
W (where, why)	- 심미적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심미적 경험이 우리 삶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생각

58) 강문영.

	해본다. - 심미적 경험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H (hook, hold)	- <최적전>에서 옥영과 최척이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과 유랑 도중 만나 통소를 붙고 시를 읊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위의 감정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각자 떠올려본다.
E-a (explore, equip)	- 작품을 보면서 옥영의 태도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느낀 근거를 글로 옮겨 적는다.
R (rethink, reflect, revise)	- 이전에 작품을 읽었을 때와 심미적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무엇이 다른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b (evaluate)	- 자신이 단순히 즐거움을 파악하는 것으로 작품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작품을 즐기면서 읽고 있는지 확인한다.
T (tailor)	- 작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거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본다.
O (organize)	-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심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W’ 항목은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작품을 심미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 보통 학생들이 수업에서 작품을 대할 때에 작품의 작가와 배경 등을 결부시켜 해석하듯이 읽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근본적 이유는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요소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습 방향을 작품을 심미적이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H’ 는 <최적전>에서는 최척과 옥영이 편지를 주고받는 부분, 유랑 중 다시 만나 통소와 시를 읊는 부분을 제시한다. 이 부분은 앞서 두 사람의 불균형한 감정의 분출, 혹은 감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느끼는 일종의 심미적 체험에서 비롯

된 행위들임을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최척전>의 한 장면과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술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면서 심미적 경험이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한다.

'E-a' 항목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작품 안에 담긴 삶의 다양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최척전>이 보여주는 가족과 공동체, 강인한 삶의 의지 등을 통해 작품이 담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R'은 학습자가 이전의 독서 태도를 되돌아보고 단순히 작품을 학습하기 위한 자세로 읽었을 때와 순수히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읽었을 때의 감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하면서 심미적 경험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다음의 'E-b'는 학습자 본인이 작품의 서사를 이해하고 충분히 감상하겠다는 태도로 접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작품을 읽을 때에 먼저 이것을 학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작품 그대로를 보고 즐기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진정한 작품의 심미적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T'는 앞의 'E' 항목에서 제시했던 것에서 확장된 경험이다. 앞서 말했던 <최척전>의 가족, 공동체, 삶의 의지와 같은 요소들은 작품의 아름다움의 요소이지만 어디까지나 일정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앞선 'E'항목에서 나아가 자신이 느낀 다른 <최척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 근거를 서술해보도록 한다.

'O'는 학생들이 작품을 읽는 과정이 단순히 작가,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 주제의식 등의 도식화된 감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본 학습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 3.4. <최척전>의 심미적 감성 역량 교수 · 학습 지도안

실제적인 수업 구성을 위해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심미적 감성 역량에 주목하여 본래 대단원을 위해 설계된 백워드 모형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수업은 총 2차시로 구성하였다. 수업 대상은 먼저 심미성이라는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면서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최척전>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유추할 수 있는 학년으로 구성해야 함을 판단하여 선택과목 ‘문학’에서 본 수업을 구성하였다.

### 3.4.1. <최척전> 교수·학습 지도안

#### ① 1차시 지도안

교과명		문학		
대상	고 2	지도교사	이은유	
차시	1/2	장소	교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한다.</li> <li>- &lt;최척전&gt;을 읽고 자신의 심미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li> </ul>			
준비물	교사		학생	
	활동지, 판서도구		활동지, 평가지, 필기도구	
학습단계 (WHERE TO)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 학습 확인	▶ 인사하기		5 분
	학습 목표 확인 [W]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최척전>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한다. - <최척전>을 읽고 자신의 심미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동기	▶ <최척전>에서 옥영과 최척이 편지를 주고받는		컴퓨터
				3

	<p>유발 [H] [T]</p>	<p>장면과 유량 도중 만나 통소를 불고 시를 읊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위의 감정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각자 떠올려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 ①) 짝사랑하는 친구가 날 보며 웃어 줄 때 컷가에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 ②) 화창한 봄날의 하늘을 바라보며 김영랑의 &lt;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gt; 라는 시가 떠올랐다.</p> </div> <p>▶ 문학 장르 이외에 음악이나 영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느낀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야기해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 슬플 때에 발라드 곡의 선율과 가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 때</p> </div>		<p>분</p>
<p>전개</p>	<p>수행 과제 제시 [W] [T]</p>	<p>▶ 교사는 수행 과제를 부여하고 내용을 설명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자신이 학교 신문 동아리의 기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lt;최척전&gt;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 &lt;최척전&gt;의 서평은 기자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그렇게 느낀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p> </div> <p>▶ 서평 쓰기의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평이란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본 학습에서는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신의 감상을 중점으로 하여 글을 쓴다. -자신이 느낀 바와 작가의 배경,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등 주변 정보를 활용한다. - 도입 - 전개 - 맺음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p> </div>	<p>수행과제 활동지 칠판</p>	<p>5 분</p>

	수행 과제 실행 [R] [E-b] [T]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최척전&gt;을 자유롭게 감상한다.</li> <li>- 작품을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자유롭게 써 본다.</li> <li>- 작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거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본다.</li> <li>▶ 다 읽지 못한 부분은 과제로 제시하여 다음 차시까지 다 읽어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필기도구	37 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 과제 활동의 의미와 심미적 경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li> <li>▶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li> </ul>		5 분

수업 1차시는 학생들이 <최척전>을 자유롭게 감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과정은 WHERETO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다. 먼저 학습 목표로 심미적 경험에 대해 제시한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것으로 직접 <최척전>에 제시되어 있는 최척과 옥영의 일화를 제시한다. 최척이 옥영의 편지를 읽고 느끼는 옥망의 충동을 고사를 보며 억제하는 장면이나, 둘이 어렵게 해후하여 행복감을 느끼면서 통소를 부르고 시를 짓는 장면은 그 자체로서 두 등장인물의 심미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학생들도 공감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또한 고전 작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작품의 첫 인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한 순간을 생각하면서 ‘짝사랑 하는 친구가 나를 봐 주었을 때’ 라든지 혹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느꼈던 감정 등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문학 장르 이외에서 느꼈던 아름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심미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이나 영상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느꼈던 느낌들을 학생들에게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개념 이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수행과제를 부여한다. 자신이 학교 신문 동아리 기자가 되어 <최적전>을 서평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활동이다. 먼저 서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 학습에서의 서평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본래 비평문의 성격을 띠는 것이 서평이지만, 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감상에 중점을 두고 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한다. 자신의 감상과 더불어 작품에 관련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쓰며 도입 - 전개 - 맺음의 구조로 완성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먼저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감상한다. 그 과정에서 느낀 작품에 대해 충분히 감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 내에서 읽지 못한 내용은 과제로 부여한다.

② 2차시 지도안

교과명		문학		
대상		고 2	지도교사	이은유
차시		2/2	장소	교실
학습목표		- <최적전>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한다. - <최적전>을 읽고 자신의 심미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수행과제 활동지, 판서도구	수행과제 활동지, 평가지, 필기도구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 학습 확인	▶ 인사하기 ▶ 전시학습 확인  - 심미적 경험이란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3 분

	<p>학습 목표 제시</p>	<p>▶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p> <p>- &lt;최척전&gt;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한다.</p> <p>- &lt;최척전&gt;을 읽고 자신의 심미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p>	<p>칠판</p>	
	<p>동기 유발 [H]</p>	<p>▶ 포털 사이트의 영화 한줄평을 보면서 한줄평의 재미와 효과를 통해 학습의 흥미를 유도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더 올버린(2013)'의 한줄평 "올버린 돈버린 올어버린"</p> </div> <p>- 운율을 살려 쓴 재밌는 한줄평을 보며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도한다.</p> <p>▶ 앞 차시와 더불어 이번 차시의 서평 수행과제를 상기시킨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신의 감상을 중점으로 하여 글을 쓴다.</p> <p>- 자신이 느낀 바와 작가의 배경,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등 주변 정보를 활용한다.</p> <p>- 도입 - 전개 - 맺음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p> </div>	<p>컴퓨터</p>	<p>5 분</p>
	<p>수행 과제 설명 [W]</p>	<p>▶ 이번 차시의 수행 과제를 제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작가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주제와 가치에 대하여 유추해본다.</p> <p>- 기사 서평 형식으로 글을 완성한다.</p> </div>	<p>칠판</p>	<p>2 분</p>
<p>전개</p>	<p>수행 과제 실행 [E-a] [E-b]</p>	<p>▶ 교사는 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lt;최척전&gt;의 작자 조위한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남원으로 피란을 와 살며 전쟁의 참상을 실제 체험하였다.</p> </div>	<p>수행과제 활동지</p>	<p>25 분</p>

	<p>- 조위한은 남원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 조위한은 피란 도중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를 잃고, 어린 딸을 잃는 가족 이산의 아픔을 겪었다. - 최척과 조위한의 동생은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기록이 있으며, 그의 부인 역시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다.</p>		
[T]	<p>▶ 학생들은 &lt;최척전&gt;을 읽고 자신이 느낀 작품의 재밌는 부분과 자신이 아름답고 가치가 숨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확인한다.</p> <p>- 어디서, 왜 아름답다고 느꼈는지 서술한다. - 간단한 작품 배경과 작가의 정보를 소개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작품과의 연관성을 유추해본다.</p> <p>▶ 기사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lt;최척전&gt;의 간단한 줄거리와 소개하고 싶은 부분 - 자신이 재밌고 아름답다고 느낀 부분에 대한 이유</p> <p>▶ 작품의 사회적 배경, 작가와 &lt;최척전&gt;과의 관련성을 유추해본다.</p>		
수행 과제 발표 [O]	<p>▶ 각자 작성한 서평을 발표한다.</p> <p>- 학생들은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학생이 감상한 &lt;최척전&gt;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p>	수행과제 활동지	10 분
정리	<p>▶ 학생들은 루브릭 평가지를 통해 자신의 &lt;최척전&gt; 서평과 짝의 &lt;최척전&gt; 서평을 평가한다.</p> <p>▶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p>	루브릭 평가지	5 분

2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먼저 심미적 경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실제

영화 한줄평을 통해 재밌고 참신한 비평문의 한 예시를 경험하고 본 수업의 흥미를 유도하고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언급한 서평 쓰기 수행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앞 차시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통해 작품을 경험하였다면 2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으로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과 작가 정보를 듣고 작품을 다시 감상한다. 이것은 심미적 경험의 일차적 목적은 아니지만 문학적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작품과 감상, 그리고 경험의 연결을 보다 올바르게 하기 위한 요소가 된다. 이에 교사는 <최척전>의 저자인 조위한의 삶과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교사가 제공한 정보를 인지하고 다시 작품 내용을 떠올린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이 사회 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었을 때 작품에 드러나는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의 가치들이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을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 과정 도중에 학생들의 감상 내용이 학습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루브릭 평가지를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서평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짝과 바꾸어 서로의 서평을 감상한다. 짝이 자신만의 감상의 근거를 잘 표현하였는지 확인하고 루브릭 평가지에 점수를 매긴다. 교사는 수행과제 활동지와 평가지를 거둬 확인하고 다음 수업의 전시 학습 부분에서 간단히 모범 예시를 발표한다.

### 3.4.2. 수행 과제 활동지

교 과 날 짜	국 어	<b>&lt;최척전&gt; 읽고 서평쓰기</b>	반 번	
	2018년 월 일		이 름	
<p>- 나는 신문 동아리 기자이다. 이번 나의 업무는 신문 '문화' 란에 &lt;최척전&gt;을 서평하고 소개하는 일이다. 먼저 &lt;최척전&gt;을 감상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서평을 작성해야 한다.</p>				

- 서평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척전>의 간단한 줄거리
2. 자신이 특히 재밌거나 인상 깊게 본 부분과 그 이유
3. 사회·역사적인 배경과 작가의 상황을 토대로 <최척전>이 담고 있는 삶의 가치와 의식을 유추하기
4. 도입 - 전개 - 맺음의 구성으로 작성

**<문화>**

**\_\_\_\_\_기자가 선택한 이달의 작품, ‘<최척전>**

예시)

<최척전> 하면 순간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웬지 모르게 최척이라는 영웅이 싸움에서 다 때려 부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 것만 같다. 멋진 영웅의 서사시를 기대하며 책을 펼쳤지만 사실 이 소설의 내용은 최척 가족의 이산가족 상봉기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척과 그의 아내 옥영이다. 둘은 어렵사리 결혼에 성공하지만 전쟁으로 남편 고향 땅은 파괴되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낱알이 묘사하여 당대 전쟁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참혹한 묘사만큼 슬픈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딱딱 단힌’ 결말의 해피엔딩. 최척과 옥영은 물론 부모와 자식, 사돈까지 한 곳에서 만나는 눈물과 희망의 최척 가족 상봉기! 이런 결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설 쓴다’라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작가가 당대 독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에는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와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있기도 하니까 말이다.

작가 조위환은 실제로 남원에서 살면서 의병으로 활동했고 전쟁 도중 가족을 잃었다고 한다. 조위환은 이 소설을 지으면서 주인공인 최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닐까? 또 전쟁으로 실의에 빠진 자신과 독자들을 위로해주려고 가족이 한테 만나 완전함을 이루는 희망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최척전>을 읽으면서 최척의 지고지순함에 감명 받았다. 자신을 거둔 명나라 장수 여유문과 사돈을 맺으면 앞으로의 삶이 더 평탄했음에도 모르는데. 그는 생사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옥영만을 생각하며 혼사 제안을 뿌리쳤다! 통소까지 잘 부는 조선의 순정남 최척! 그가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순정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최척전>은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 그간의 고전 소설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영웅의 멋진 활약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 그저 최척과 옥영의 발걸음을 따를 뿐.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싶다면, <최척전>과 함께!

### 3.4.3. 루브릭 평가지

교과	국 어	<최적전> 서평쓰기 평가지		반 번																	
	날 짜			2018년 월 일	이	름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잘함</th> <th>보통</th> <th>부족함</th> </tr> </thead> <tbody> <tr> <td> <p>스스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td> <td>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점)</p> </td> <td>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이를 서술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 (4점)</p> </td> <td> <p>&lt;최적전&gt;의 즐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3점)</p> </td> </tr> <tr> <td> <p>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td> <td>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하였다. (5점)</p> </td> <td>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배경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감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4점)</p> </td> <td>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찾는 것이 부족하다. (3점)</p> </td> </tr> <tr> <td>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0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td> <td>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점)</p> </td> <td>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8점)</p> </td> <td> <p>작품에 나타난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 (6점)</p> </td> </tr> </tbody> </table>							잘함	보통	부족함	<p>스스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점)</p>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이를 서술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 (4점)</p>	<p>&lt;최적전&gt;의 즐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3점)</p>	<p>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하였다. (5점)</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배경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감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4점)</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찾는 것이 부족하다. (3점)</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0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점)</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8점)</p>	<p>작품에 나타난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 (6점)</p>
	잘함	보통	부족함																		
<p>스스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찾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점)</p>	<p>&lt;최적전&gt;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이를 서술하는 것이 다소 모호하다. (4점)</p>	<p>&lt;최적전&gt;의 즐거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3점)</p>																		
<p>작품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5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하였다. (5점)</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배경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감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4점)</p>	<p>작품에 담긴 사회·역사적 맥락을 찾는 것이 부족하다. (3점)</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10점)</p> <p>나 : <input type="text"/></p> <p>친구 : <input type="text"/></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점)</p>	<p>작품을 읽고 자신이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았으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8점)</p>	<p>작품에 나타난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 (6점)</p>																		

## V. 결 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계의 일환이다. 그 중에서도 ‘심미적 감성 역량’은 대체되어 가고 있는 인간의 존재에 가장 인간다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찾으며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체화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심미적 경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에서는 <최척전>이 함의한 ‘심미적 감성’ 역량을 확인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 본 아름다움은 보다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설러는 미적 경험을 두고 야성적 인간이 윤리적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 생각하였고, 듀이는 인간을 내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예술을 보고 느끼는 주체에 보다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문학에서도 수용이론이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이론이다. 주체가 문학 작품을 보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인지적 배경과 상상력으로 작품 서사의 틈을 자신이 메우는 것, 그것이 수용 이론의 미적 경험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심미성 역시 그 의미의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즉 ‘심미성’이란 독자, 혹은 학습자가 작품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이다.

위와 같은 심미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최척전>을 분석하였고 추출한 요소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법 절차를 제시한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래 백워드 설계 모형은 교과서 대단원을 구성하기 위한 모형이지만 본 연구의 중점인 심미성과 <최척전> 단일 제재임을 고려하여 2차시 수업으로 모형을 변형 구성하였다. 백워드 설계를 통한 수업 구성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심미적 경험 개념을 구체적인 설계와 준거를 통해 학습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

로 작품에 내재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인간의 다른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안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의미, 아름다움이 내포돼 있다.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이야기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국 내 주위의 삶에 같이 공감할 줄 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심미적 체험, 즉 작품을 읽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기반으로 나와 우리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감성을 가진 학습자로 거듭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인간성에 대해 환기할 수 있으며 보다 유의미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교육부, 『201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 국어』, 교육부, 2015.
- 강현석·이지은, 『백워드 설계의 이론과 실천 : 교실혁명』, 학지사, 2016.
- 곽삼근, 『현대인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집문당, 2016.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2.
- 김민제,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1998
- 김진엽 외, 『미학』, 책세상, 2007.
-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역사』 제1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 박희병,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 \_\_\_\_\_,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 존 듀이, 이재연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2.
- 프리드리히 쉐러, 안인희 역,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청하, 1995.
-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2002.
- 한혜정 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교육부, 2017.
- 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역,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1999.

### 학술논문

-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제24집, 열상고전

연구회, 2006.

신태수, 「여성 인물형상을 통해 본 <최척전>의 창작의도」, 『어문연구』 제77집, 2013.

오윤주,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소설 교육」, 『문학교육학』 제5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이광우 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관련 이슈 고찰: 인간상, 교육 목표, 교과 역량과의 관계」, 『교육과정연구』 제35권, 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이인화, 「핵심역량 기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행 방안 연구 -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제10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장효현, 「<崔陟傳>의 창작기반」, 『고전과해석』 제1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조현일, 「미적 향유를 위한 소설 교육 - 감정이입과 공체험을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제9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 ABSTRACT

###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e education in

### <Choi Cheok Jeon>

Lee, Eun Yu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aesthetic emotional sensitivity' among the core competencies suggested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enhance the aesthetic emotional ability,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constructed based on Cho Wihan's <Choi Cheok Jeon>. If the work has been studied in a socio-historical context,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aesthetics inherent in the work. The Imjin War and The Jeong Yu War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lives of the characters in the works, but the beauty of life in them was worth educating itself. In this way, we will find elements of esthetic sensitivity in <Choi Cheok Jeon> and propose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prepared by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ncepts and sub-elements of the six core competencies described in the curriculum are the concepts of the curriculum outline. In order for this study to be carried out in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s, we examined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more detail on how the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e realized by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expressed on the general level.

In Chapter II, we examin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aesthetic competence'. The concept of aesthetics originates from aesthetics, and we will focus on the educational aspect and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educational level and the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situation and focuses on the learner 's status. This is intend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jectivity' of aesthetic experience. This focuses on the subjective aspects of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theories of Schiller and Dewey, which emphasize human experience. Furthermore, it confirms that the 'acceptance theory' of literary theory focuses on the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the subject of literary appreciation, and studies the meaning of 'aesthetic experience' of 'acceptance theory'.

In Chapter III, we extracted the esthetic sensibility of <Choi Cheok Jeon> based on the study of Chapter II, and constructed the basis of actual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First, Choi Cheok Jeon was set as a cultural expedition for Korean language, and how Choi Choi Jeon was satisfied with the stages of aesthetic experience was extracted.

In Chapter IV,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was proposed and presented. It is true that an aesthetic experience is difficult to construct learning and evaluation because of its abstrac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which should be practical and effective, 'backward design' model was used and aesthetic experience learning was specified. Backward design is a model that constructs learning stage considering evaluation. This means that in the course of learning, students do not learn to memorize simple knowledge but have a goal to reach an essential and lasting understanding. Although it is easy to think that the classics are learned by learning the artist and the subject consciousness, I made the learning goal of the students themselves to feel the beauty of the fun itself and the beauty of the classics. The evaluation focused on developing the power to find the basis of appreciation. For

this process, I assumed a specific situation that I could face in the real world, and proceeded to a book review by introducing <Choi Cheok Jeon> as a newspaper reporter.